

광주·전남 아파트 경매 열기 '시들'

주택시장 침체 여파 매물도 줄어 낙찰률 45% ... 낙찰가율도 하락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올 들어 광주·전남의 아파트 경매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경매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아파트 매물 감소로 인해 건당 경쟁률은 크게 높아진 반면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동반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이 경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7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1·4분기 현재 광주·전남은 710건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가운데 45.5%(323건)가 낙찰됐다.

이는 지난해 1·4분기(49.7%)에 비해 낙찰률이 4.2% 떨어진 것으로, 올해 매물이 7.3%(56건) 감소한 데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크게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 들어 광주·전남 투자자들이 아파트 경매에 신중하게 나서고 있다. 제테크를 위해 경매시장을 찾는 발걸음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최대한 낮은 가격에 경매를 받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의 아파트 경매에 대한 평균응찰자는 7.31명으로, 지난해 1·4분기(5.34명)보다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하지만 이들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가격은 지난해 1·4분기 감정가의 87.4%에서 올해 78.6%로, 8.8%나 떨어졌다.

이같은 투자자들의 태도는 주택시



장 침체로 아파트 처분이 어려워진 데다 일부 초보투자자들의 경우 권리분석과 명도(집을 비우는 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전남의 경우 시세보다 싼값에 집을 사겠다는 생각에 경매를 받은 뒤 명도 문제 등을 처리하지 못해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지지옥션 측은 탐정은 "최근 법원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권리분석과 명도 등으로 인해 망고생에 시달리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며 "철저한 권리분석은 물론이고, 명도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경매가 끝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은 올 들어 토지 경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주택 경매와 대조를 이뤘다. 1·4분기 현재 광주·전남은 총 6천422건의 토지가 경매에 부처진 가운데 37.7%(2천 419건)가 낙찰됐다.

이는 지난해 1·4분기(33.3%)에 비해 낙찰률이 4.4% 높아진 것으로, 낙찰가율도 지난해 감정가의 85%에서 올해는 93.1%까지 치솟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와인 50% 할인 판매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 지하 1층 식품매장이 4~10일 제 3회 롯데백화점 와인 박람회 열고 있다. 행사기간동안 모두스, 까시레스 가우디움, 사시카이아, 사또마고 등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광주 여성 경제활동 인구 27만명 전남은 '여성파워' 제주 이어 2위

통계청 2월 중 분석

올 들어 광주지역은 육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고령 여성들이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이면서 제주에 이어 '여성 파워'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광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27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5세 이상 여성(58만 4천명)의 47.3% 수준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해 2월(48.8%)에 비해 1.5%포인트 떨어졌다.

이처럼 광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둔화된 것은 지난해 2월에 비해 육아나 통학 등에 종사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만2천명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2.2%에 달했다. 이는 제주(60.6%)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고령층의 농업 종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와 전남에 이어 ▲서울(50.9%) ▲경남(49.5%) ▲경북(48.8%) ▲경기(48.8%) ▲대전(47.8%) ▲대구(47.5%) 등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

한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제주가 76.6%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 76.1%, 인천 75.0%, 경기 74.0%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69.7%로, 전남(74.0%)을 크게 밑돌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게임 업체 인터세이브 4월 '랫소골프' 서비스



모바일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업체로 광주 유일보사가 주는 '이달의 자랑스런 중기인상'을 수상한 인터세이브

(대표 이갑형)가 유럽풍 게임인 '랫소골프(사진)'를 서비스한다.

이갑형 대표는 7일 "지난달 퍼즐 액션게임인 '고스트 스토리'를 에니폴랜드에 선보인 데 이어 이달 안에 SKT에 '랫소골프'를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랫소골프'는 유럽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모바일 골프 게임으로, 자세한 게임설명 http://www.mobilegames.kr에 접속하면 된다. 인터세이브는 지난해까지 8개의 모바일 게임을 개발, 6억원대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 20여개의 게임을 추가해 50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2돌

대한통운 인수 자산 26조원 재계 7위 우뚝

올해 대한통운 인수로 성기를 높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7일 창립 62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재계 10위권을 맴돌던 금호아시아나는 지난달 자산 1조5천억원 짜리 대한통운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자산이 26조원을 넘어서 한진을 제치고 재계 7위로 우뚝 섰다.

금호아시아나의 이런 도약에는 박삼구 회장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박 회장이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전에서 강한 인수의지를 바탕으로 뚝심있게 밀어붙인 결과

금호아시아나가 육해공을 아우르는 대기업으로 거듭났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박 회장은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경영인상인 '언스트앤영 최우수 기업가상'의 첫 국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금호아시아나의 올해 경영목표는 매출 26조4천429억원, 영업이익의 2조 28억원, 경상이익 1조9천709억원이다. 각각 작년 대비 27.3%, 36.9%, 2.6% 늘어난 수준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보해 매화사진 콘테스트 입상자 발표

대상에 이종규씨 '매화의 바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가 주최한 '제7회 보해 매화사진 콘테스트' 심사결과 이종규씨의 '매화의 바다(사진)'가 대상에 선정됐다.

매화사진 촬영대회는 지난달 22~23일 해남 보해 매실농원에서 열려 2천여명의 사진애호가들이 참여했다.

또 금상은 기우경씨의 '첫 나들이'와 최의진씨의 '그대 가슴에...'가 수상했으며, 은상은 존 잭슨씨의 '매화'와 김경열씨의 '사랑해요'가 차지했다. 이밖에 동상은 각 부문별 2점씩, 총 4점이 차지했으며, 자유부문 23점과 포맷부문 16점 등 총 39점이 입선



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오후 5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수상한 작품들은 시상식이 끝난 후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광주·전남과 서울지역에서 오는 5월 까지 릴레이 전시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Sense Wood 신품가구 80~70%

봄 맞이 본사지원 Big Sale